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8월 신선식품 물가 급등, 정부 물가대책 발표

- 2008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.3(2005년=100)으로 전월대비 0.3%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, 특히 이상기온 등으로 신선식품지수가 20.0% 급등함.
 - 농수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2% 상승하였고, 생활지수 또한 0.4% 상승에 그쳤으나 생선과 조개류, 채소, 과일 등을 포함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.0%, 전년동기대비 11.7% 상승함.
 - 품목별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이 8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상추(41.3%), 배추(15.0%), 마늘(15.5%), 수박(39.8%)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품목이 크게 상승함.

- 정부는 9월 2일,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함.
 - 추석 명절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는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하여 대책기간 중 일일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,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4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 할인판매를 확대할 예정임.

- 서민물가의 안정화 방안으로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산물,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, 경쟁촉진, 유통구조 개선,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.
 - 무, 배추 등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(61천 톤)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마늘의 2010년 수입쿼터를 10월까지 전량 도입 방출할 계획이며, 과일류의 경우 추석 기간 동안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할 예정임.
 -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,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담합,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며,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함께 할 계획임.
 - 또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등록금 상한제 정착,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통한 대학등록금 안정화 정책으로 교육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임.

(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등, 지식경제부 등, 9/2)